

# 내일이 사라졌어요

김건구

“권성안! 교과서 몇 쪽 읽으라고 했어?”

성안이는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를 긁적이며 짝꿍인 지연이를 바라보고 속삭였어요.

“지연아, 몇 쪽이야?”

지연이는 답변 대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의 호통이 벼락처럼 내리쳤습니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 하는구나?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또 물어보려고 그러니? 수업에 집중 좀 해라!”

“네, 죄송합니다.”

요즈음 학교 가는 것이 싫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방과 후에 학원에 가는 틀에 박힌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멍하니 상상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선생님에게 혼나기 일쑤였지요.

“딩동댕동.”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자 주섬주섬 가방을 쌌습니다. 그때였어요.

“성안아, 놀이터에서 같이 놀자!”

같은 반에서 제일 친한 동준이었습니다. 성안이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미안. 학원 가야 해.”

“지난번에도 학원 때문에 못 놀았잖아. 매일 가는 거야?”

“저번에는 영어 학원이고, 오늘은 수학 학원이야.”

“힘들겠다……. 그러면 다음에 놀자.”

성안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헉. 다음에도 놀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야.”

투덜거리며 교실 밖을 나갔어요.

교문 앞에 가니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가 광고지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 가렴.”

할머니가 내민 종이를 무심코 받았습니다. 학교 앞에 새로 학원을 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또 학원이야? 예잇!”

성안이는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전단지를 땅바닥에 버렸습니다.

“에구구! 바로 버릴 거면 왜 받았니?”

“학교 앞에서 이런 거 나누어 주면 안 되는 거 몰라요?”

가뜩이나 학교에서 혼나고 놀지도 못했기 때문에 더 짜증이 났어요.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다급하게 부르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야, 잠깐만!”

“왜요?”

“그래. 네 말이 맞아. 학교 앞에서 이런 광고지를 나누어 주면 안 되지. 미안하다.”

성안이는 할머니의 사과를 들으니 머쓱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우물쭈물하고 있는 찰나에 할머니께서 가방에서 무언가를 찾으셨어요.

“미안하다는 의미로 선물을 줄게.”

가방 안에는 신기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것을 보니 성안이는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장난감일까? 요즘 유행하는 몬스터 카드일까?’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마음은 할머니가 건넨 물건을 보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이 뭐야!”

그냥 달력이었어요. 가던 길을 가려는데 할머니가 붙잡았어요.

“사실 이건 평범한 물건이 아니야.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신기한 달력이지. 앞으로 남은 날짜 중 네가 원하는 날에 ‘x’ 표시를 하면 그날은 사라진단다.”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에이! 제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에 속을 것 같아요?”

“정말이라니까. 속는 셈 치고 가져가 보면 되잖아.”

할머니가 쪽 내민 달력을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흐음.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신기한 물건을 제게 줘도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필요 없어. 옛날에 많이 사용해 봤거든.”

성안이가 달력을 갖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할머니가 뒤에서 외쳤어요.

“달력에 ‘x’로 표시한 뒤에는 지우개로 지워도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렴!”

성안이는 달력을 한참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을 물어 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할머니는 온데간데없었지요.

집에 도착한 뒤, 달력을 책상 위에 대충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갔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평상시처럼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문득 호기심이 생겼어요.

‘설마 할머니 말이 진짜는 아니겠지?’

장난삼아 내일 날짜에 연필로 ‘x’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 할머니한테 속았잖아!”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할머니를 만나면 따져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서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으아! 9시야! 지각이다!”

얼른 가방을 챙겼습니다. 헐레벌떡 신발 신고 현관을 나가려는데 엄마가 반쯤 감긴 눈으로 나왔어요.

“너 어디 가?”

“학교 가요! 왜 오늘은 안 깨워 주셨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인상을 찌푸리며 스마트폰 화면을 들어 올려 날짜를 보여 주었습니다.

“봐라. 토요일이잖아.”

순간 멍해졌어요. 눈을 몇 번 비비고 날짜를 확인했지요. 정말 토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 사라졌어요! 당황한 나머지 가방을 멘 채로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말도 안 돼!’

달력을 잡은 손이 벌벌 떨렸어요. 원하는 날짜를 언제든지 없앨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받아쓰기 시험이 있었지?’

이번에는 신중하게 연필을 들어 ‘x’ 표시를 했습니다.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다음 주 월요일이 사라질까?’

주말에 게임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받아쓰기 공부도 조금 해 두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일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자려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사리 잠들지 못했어요. 한참을 뒤척인 후에야 꿈나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성안이는 눈을 뜨자마자 날짜를 확인했어요.

“맙소사!”

화요일이었습니다. 받아쓰기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니! 콧노래를 부르며 몸을 흔들었어요. 앞으로 모든 시험 날짜를 없앨 생각을 하니 신바람이 났습니다. 문득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월요일을 보냈

을지 궁금해졌어요.

학교에 가자마자 짝인 지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받아쓰기 시험 어땠어?”

“어제는 주말이었잖아. 학교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시험을 봐?”

지연이는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받아쓰기 시험 없었어?”

“월요일?”

“오늘 화요일이잖아. 그러면 어제는 월요일이었겠지.”

지연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얼굴을 찌푸리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으! 월요일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머리만 아파!”

다른 사람에게도 월요일이 통째로 사라졌다니! 교실을 나오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신이 된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날짜를 없앨 수 있구나!’

혹시 몰라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사라진 월요일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다행히 지연이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두 사라진 날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혹시나 월요일에 대해 캐물으면 다들 머리를 감싸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앞으로 달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에 저절로 콧바람이 나오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받아쓰기 시험 이후, 아직 달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띠리링!”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준이었어요.

“응, 동준아. 무슨 일이야?”

“성안아! 내일 지연이 생일인데 선물 뭐 할 거야? 너랑 선물이 겹치지 않게 가져가려고 물어보는 거야.”

“응? 지연이 생일?”

“설마 잊은 거야? 네 짝인데?”

성안이는 당황스러운 나머지 대충 얼버무렸어요.

“아니. 잊은 건 아닌데……. 아직 안 샀어. 내일 사려고. 너는?”

“그러면 나는 곰 인형 살게. 너는 다른 거 사라!”

전화를 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 달에 받은 용돈을 오락실에서 전부 써 버리는 바람에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문득 지난 생일 때 자동차 필통을 지연이에게 선물받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달력을 들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연이의 생일이 있는 날에 ‘×’ 표시를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사용하는 거야. 아마 지연이는 생일이 지나갔는지 도 모를걸?’

다음 날, 학교에 가니 지연이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힐끗힐끗 옆을 쳐다보며 지연이의 표정을 살폈어요. 다행히 지연이는 자신의 생일이 사라졌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생일은 내년에도 있을 테니까…….’

신기하게도 달력에 몇 번 ‘×’ 표시를 하고 나니 부담감이 없어졌

습니다. 그날 이후, 별거 아닌 일에도 달력을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싫어하는 수학 수업이 있는 날, 학원에서 숙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 치과에 가서 충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날 등 조금이라도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날짜를 지웠습니다. 그 덕분에 항상 원하는 날만 보낼 수 있었어요. 시간은 금세 흘러갔습니다. 싫어하는 날짜를 없애다 보니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이 주말이랑 겹쳐서 때 연휴가 길어. 그래서 할아버지 댁에 나흘간 머무를 거야.”

성안이는 아빠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나 오래요? 원래는 하루 정도만 머물렀잖아요.”

“이번에 가서 아빠가 할아버지 농사일도 도와드려야 하거든.”

밥소사. 할아버지 댁은 방에서 벌레가 나오고, 와이파이드 없고, 컴퓨터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나흘이나 머물러야 한다니! 최악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골 내려가는 동안 차로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끔찍했습니다.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달력을 꺼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날을 없애도 될까?’

약간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집에서 편하게 머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를 모두 없앴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성안이네 가족은 마치 원래 추석 연휴가 없었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성안이는 연휴 때 시골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 보니 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석 연휴가 그렇게 길었는데 한 번도 못 쉬고 학교에 나오다니!  
짜증이 나.’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는 얼른 달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금요일까지를 모두 ‘×’로 표시했습니다.

‘가만! 토요일과 일요일만 반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친김에 다음 주 주중에 있는 날짜도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덕분에 다음 날부터 계속 주말만 보내게 되었지요. 학교와 학원에 가지 않으니 행복했습니다. 온종일 집에서 게임만 했지요. 가끔 부모님이 주말에 등산을 가자고 하면, 다음 날로 약속을 미룬 뒤 그날도 ‘×’ 표시를 해서 없애 버렸어요. 성안이는 힘들게 산을 오르며 땀을 흘리는 것이 싫어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달력을 넘기다 보니 벌써 12월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칠 만에 일 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를 어찌지?”

그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기억에 남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연이 생일 파티에 갔다면 키즈 카페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었고, 할아버지 댁에 내려갔다면 할머니가 만든 갈비찜을 가족들과 맛있게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기회를 송두리째 도둑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달력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처럼 달력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추억도 없고, 배운 것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달력을 막 사용했다가는 금세 할아버지가 되고, 그 이후에는…….’

깊게 생각할수록 달력을 사용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일 년이라는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없앤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문득, 예전에 의미 없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그리워졌어요. 성안이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서 지우개로 달력에 있는 ‘x’ 표시를 박박 지워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눈앞에 눈물이 고이며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던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야겠어!’

다음 날, 성안이는 달력을 가방에 넣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얼른 앞으로 다가가 머리를 숙이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달력에서 ‘x’로 표시한 걸 지워도 소용이 없어요.”

할머니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안다는 듯,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내가 달력을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니?”

“제가 아무렇지 않게 버린 날들이 그리워요. 제발 시간을 돌릴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이미 지나간 날은 오지 않아. 나도 이 달력을 선물받고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금세 할머니가 되고 말았지. 이제 12월이 지나면 달력

은 내년 것으로 바뀌고, 올해는 영영 사라지고 말 거야.”

할머니가 혀를 꼰꼰 찻습니다. 성안이는 눈물을 툭툭 흘렸지요. 그때였어요. 눈물에 젖은 달력이 빛을 내며 부풀어 오르지 않겠어요? 성안이는 부풀어 오른 12월 달력을 살짝 뜯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과 사물들이 동영상을 되감기하는 것처럼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11월이 되었지요. 시간이 되돌아간 것입니다! 성안이는 서둘러 남아 있던 달력을 뜯어냈어요. 달력을 처음 받았던 날까지 뜯어내자 성안이 손에는 전단지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앗! 할머니를 처음 만난 날로 되돌아갔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나도 어렸을 때 너처럼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성안이는 슬퍼하는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말없이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성안이 등을 토닥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지나간 일을 후회해 보았자 뭐하겠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지…….”

다음 날 아침, 성안이는 엄마의 잔소리 없이 스스로 일어나 학교에 갔어요. 수업은 여전히 싫었지만 하나라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했답니다. 일 년이라는 시간을 새로 선물받은 것 같아 모든 순간이 즐거웠어요. 얼굴에 저절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연이가 이상하게 쳐다보며 물었어요.

“성안아! 다음 주에 받아쓰기 시험 있는데 걱정 안 되니?”

“주말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같이 준비할래?”

성안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지연이를 보며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방긋 웃었어요.